

#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전형위원 신규 연수

## 15.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 2



## 15.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 2

오늘의 활동	1. 교육과정 및 교과 영역의 평가방식 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평가방식 3.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평가방식
오늘의 목표	1.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 영역의 평가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2.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평가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3.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평가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 [활동1] 교육과정 및 교과 영역의 평가방식

**오해:**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성적 순으로 선발하나요?

**진실:** 아닙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과 성적 순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 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해:**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진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및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런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성적을 받기 수월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인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성취도를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만을 반영하거나 원점수만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로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 심화과목을 이수하면 유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심화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을 제외하면 모든 학생이 심화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교과목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과학Ⅱ에 해당하는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기를 권장합니다만, 반드시 심화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진실:** 아닙니다.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 성적에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 상황에 기재된 교과 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원점수와 석차 등급으로 표현되지 않은 예술·체육교과 성적 내용도 반영합니다. 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높게 평가합니다.

**오해:** 공부 방법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진실:** 아닙니다.

공부 방법 자체가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 문제 풀이 이상의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공부를 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공부 방법이 있지는 않지만 창의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 [활동2]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평가방식

**오해:** 교외 수상실적 등 소위 스펙이 많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 아닌가요?

**진실:** 아닙니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노력한 교과/교과 외 활동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학생이 노력한 내용의 동기, 과정, 결과 모두를 분석하여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 학업태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2015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전형에서 외부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공통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 학생회장 경험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리더 역할을 한 경험 자체만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리더 역할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한 지원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학생회장 등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보다는 어떤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는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오해:**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15. 대학의 학생 선발방식 2

**오해:**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진실:**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의 형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배경, 과정 등 학생이 경험한 봉사활동의 내용을 고려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은 종합평가의 일부분이며, 무조건 많이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과 지원하는 모집단위가 관련이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진실:** 아닙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희망은 항시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에 기록된 직업보다 학생의 목표를 바탕으로 길러온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 스스로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공부한 배경, 과정,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로소 학생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성취가 지원한 모집단위 학업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과정이라면 진로희망기록이 지원 모집단위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합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교과외 활동이나 결과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지원 모집단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폭넓게 갖추기 바랍니다.

**오해:** 자연계열 학생은 독서는 조금 소홀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진실:** 아닙니다.

분야를 막론하고 독서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독서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어느 분야든 폭넓은 독서를 통해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해:** R&E를 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진실:** 아닙니다.

학생이 특정한 활동이나 경험을 한 사실만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과수업과 수업 중 과제 수행 등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업과 관련하여 교실과 학교 안에서 노력한 내용은 그 배경, 과정, 결과가 제출하는 서류에 잘 드러날 때 의미 있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주도적인 노력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연구/탐구 활동을 한 경험이 의미 있을 수 있으며,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경험하고 노력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결과 위주가 아니라 과정과 함께 보여주기 바랍니다.

## [활동3]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의 평가방식

**오해:** 각 제출서류마다 배점이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배점은 자기소개서 아닌가요?

**진실:** 아닙니다.

소위 스펙과 기타 증빙서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가장 높은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이라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며 '종합평가'란 제출서류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각 서류의 정해진 반영 비율이 없으며 각 서류마다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소개자료 등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해:**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을 교육방송을 시청하면서 공부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나요?

**진실:**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지원자가 학습하고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이외에는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 더 알고 싶어서 한 독서활동, 방송 강좌 수강 등 학습 노력의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 경험은 일차적으로는 학교 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를 소홀히 한 채 혼자 공부한 기록을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천서

**오해:** 추천서가 당락을 좌우하나요?

**진실:** 아닙니다.

추천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지원자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나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인지한 사실 등을 추천인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오해:** 서류평가에서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유리한가요?

**진실:** 아닙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점수는 최저학력기준으로만 사용합니다. 기준 등급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므로 기준 등급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의 획득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